

KTV

2014년 1월 13일

방송심의



기획편성부

프로그램		파워특강	
방송일자	2014. 1. 6. 16:05	시청률	0.204

【총 평】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장이 출연해 '리더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음. 대한민국은 빠른 성장을 통해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지만 OECD국가 행복지수에서 하위로 분류될 만큼 개인의 행복지수는 낮은 현실을 전했다. 무엇보다 개인의 행복에 대해 무게중심을 두고 진행해 집중력이 높았음.

【구성 및 내용】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감성노동, 행복지수, 자유와 평등 등에 대하여 다양한 최신 자료, 논문, 책을 활용하여 설득력 있게 강연을 진행했음. 특히 영장류 실험 결과를 통해 '불평등이 스트레스, 분노의 근원'인데,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화되고, 현대 감성경제시대에 '감정노동'을 강요받게 되면서 행복지수가 낮아지게 되었다는 분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예술, 자연, 인문학을 통해 감성지능과 감성능력을 회복하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 소통을 중시하며, Helpers' High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진단도 설득력 있게 다가왔음. 국민행복시대에 리더의 사명과 역할을 3심(양심, 열심, 합심), 3력(실력, 담력, 매력), 3win(나, 상대, 사회)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 강연 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이 새롭게 등장한 듯해 서둘러서 결론을 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음.

【자막 오류】

- '이성'으로 처리되어야 할 자막이 "인간은 **인성**이 더 중요합니까?"로 잘못 나감.



- 강연자가 준비한 ppt 화면의 <Helpers' High> 자막이 여러 차례에 걸쳐 <Helper's High>로 잘못 처리되었음.



프로그램	국민행복시대
방송일자	2014. 1. 6. 17:00
시청률	0.048

【총 평】

KTV의 새 명칭인 '국민 방송'과 맥을 같이 하는 명실공히 KTV의 메인 시사 뉴스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생각됨. 국민행복 시대만의 독창성이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코너 구성이 필요함.

【구성 및 내용】

<주요 뉴스 아이템>으로 '박대통령 통일은 대박... 경제 도약의 기회', '정부, 북에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제안', '정상화 부실 공공기관장 조기 해임 건의' 등이 보도되었음. <국민 리포트>에서 "떠오르는 말산업" 및 <문화가 있는 삶>의 "말 타고 지구 한바퀴 展" 등 말의 해와 연관된 흥미있는 아이템 선정이 눈에 띄었음. <라이브 이슈>의 경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수-수출 균형 있는 경제' 만들기 위한 과제는? 및 '한반도 평화통일시대 구축' 언급배경은? 등 다양한 현안 이슈들을 발빠르게 잘 다루었음.

【자막 개선점】

기사를 편집하고 전달할 때 제목 위주의 자막과 주요한 몇 가지만 자막으로 나오는데 기사를 다 이해하기엔 자막이 적게 느껴짐. 물론 뉴스 자막이 너무 넘쳐서는 안되겠지만 기사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제목 지향의 자막보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막이 주가 되었으면 좋겠음.

【참고사항】

외국인 MC인 '리사 켈리'의 활용도를 좀 더 넓혀 나갔으면 좋겠음. 영어강사 출신인 점을 활용해도 좋고, 아니면 작년처럼 '리사 켈리'의 글로벌한 시각을 통해본 한국의 시사 뉴스 문화 등을 담아내도 좋을 것 같음.

프로그램	희망의 새시대		
방송일자	2014. 1. 7. 11:00	시청률	0.016

【총 평】

<이시각 주요뉴스 8꼭지>, <뉴스 1꼭지>, <이시각 국제뉴스 3꼭지>, <국민리포트 3꼭지>, <톡톡!e-세상>, <대담>, <집중 인터뷰>, <맛있는 날씨>로 구성했는데 시간 안배에 문제가 있음.

<이시각 주요뉴스> 다음에 주요뉴스에서 언급한 뉴스를 몇 꼭지 더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구성 및 내용】

<집중 인터뷰>는 '의료민영화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꼭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아 시의적절했음.

프로그램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		
방송일자	2014. 1. 8. 14:30	시청률	0.036

【총 평】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문제나 이슈, 정책 등에 대한 진단은 물론이고 제목에 걸맞게 보다 밝은 우리 미래사회에 영향을 끼칠만한 사건들을 취재한 프로그램이다. 이번회는 사회문제, 정책, 봉사 등을 주제로 균형이 잘 맞고 전체적인 구성이 깔끔했음.

【구성 및 내용】

<대한민국 청춘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도시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다 - '주민맞춤형 재개발'> 및 <이라크에 전하는 '사랑의 인술'> 등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었음. 특히, 3번째 아이템인 <이라크에 전하는 '희망의 인술'>의 경우,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잘 부합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과 연관된 글로벌한 소재로 신선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였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대한민국 청춘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에서, '김수봉/현대 엠앤소프트'의 인터뷰 시 'Hyundai MnSport'라는 Logo가 선명하게 노출된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간접광고의 느낌을 줄 소지가 있었음.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 ② 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 ③ 방송은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내레이션 오류】

- <이라크에 전하는 희망의 인술>에서 한살배기 환자 지나가 나오는 부분의 내레이션에서 "아직 아픈게 무엇인지 알기라도 하는 걸까?"는 "벌써" 또는 "이미 아픈게 무엇인지"로 바뀌어야 맞는 표현임.

【참고사항】

<도시에 새 숨결을 불어 넣는다-'주민맞춤형 재개발'>의 경우 강필성기자가 지속적으로 " ~ 정임씨 ~ "라는 호칭을 하였는데, 나정임씨의 경우 할머니뻘 정도의 연세이므로 듣기에 어색하고 결레된 느낌을 주었음. 따라서, " ~ 나정임 할머니" 혹은 " ~ 나정임씨"로 호칭을 하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것으로 보여짐.

프로그램	현장다큐 문화 행복시대		
방송일자	2014. 1. 9. 15:05	시청률	0.009

【총 평】

새해 첫 순서로, 새해 달라지는 문화 관련 법률들을 소개하는 concept으로 구성되어 서민들의 문화생활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음.

새롭게 제정/개정되는 각 법률의 수혜를 받을 구체적인 인물을 만나 취재해 각 법률이 국민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시청자가 유추하게 하거나 설명해주는 방식이 실제적이었음.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접근방식으로 정책을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테크닉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음.**

【구성 및 내용】

한국 민속촌 새해맞이 분위기를 시작으로 2014년 정부 시무식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의 새해 풍경을 소개했음. 신설부서인 스포츠산업과의 소개와 올해 문화정책의 눈에 띄는 변화로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문화기본법’에 대한 설명이 시선을 끌었음.

겨울방학을 맞아 세모녀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관람 내용과 한부모 가정의 김수자씨 덕의 이야기를 을 중심으로 ‘문화가 있는 날’과 ‘문화누리카드’ 제도를 자세하게 소개했음. 주인공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명해 집중력 있었고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음.

마지막으로 2014년 문화계를 이끌어갈 주요 법안을 소개했음. 예술인 복지법,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저작권법, 공연법의 내용을 전했는데 개선되고 발전되어가는 문화 예술분야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반가운 내용이었음.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14. 1. 9. 20:00	시청률	0.071

【총 평】

<산골마을 5공주네 겨울나기>는 안동 예안면 삼계리에 귀농해 살고 있는 최상규씨 가족의 삶을 통해 귀농 생활의 장점과 여유를 엿볼 수 있었다. 사람사는 이야기를 군더더기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제작진의 의도와 구성방식이 잘 전달되었음. 단, 타이틀에서 기대되었던 ‘산골마을 다섯 어린이들의 시각’이 부족했던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음.

【구성 및 내용】

<5공주의 겨울일기>가 제목인데 5공주의 이야기가 많이 부족했고, 일기라는 제목에서 기대하게 되는 영상이 다소 부족했음. 최상규씨 역시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위해 귀농하였다고 했는데 아빠와 아이들과의 소통의 장면 보다는 최상규씨의 개인 활동과 생활에 더 비중이 많았음. 최상규씨의 귀농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5공주의 이야기가 많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함.

안동시의 귀농 귀촌 지원 정책 정보제공과 안동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 방문 모습은 귀농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소 수박 겉핥기식이라 다소 아쉬웠음.

【참고사항】

내레이터들이 " ~ 00씨"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세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자칫 결례를 범할 소지가 있음. 가급적 " ~ 000씨"라고 성을 붙인 풀 네임으로 호칭하면 좋겠음.

프로그램		대한니우스의 '그때 그 사람'	
방송일자	2014. 1. 10. 16:05	시청률	0.022

【총 평】

'말의 해'를 맞아, 기마민족의 기상을 이어받은 우리 '사물놀이'의 해외진출 50년을 재조명한 기획 및 인물선정이 돋보였음. 특히, 사물놀이의 산 증인인 '김덕수' 한국 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진취적이면서도 글로벌한 기개가 신년이라는 시의성과 매우 잘 어울렸음.

【구성 및 내용】

1957년 남사당으로 시작해 오늘날에 이른 김덕수 교수로 부터 우리나라 50년대 연희판과 사물놀이에 대한 산 증언을 들어보고 그 변천사를 시대적으로 정리해 보았음.

'사물놀이'의 해외진출 50년 역사를 좀 더 다양한 영상삽입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체감적으로 보여주었다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음. 1964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사물놀이'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만큼, 1964 도쿄 올림픽 장면을 위시하여 그 이후의 미국 유럽 공연 등의 대한뉴스 영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말의 해 ~ 기마민족-유목민족 ~ 말의 기운을 '사물놀이'와 연계시킨 '김덕수' 교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자칫 '말의 해'와 우리 '사물놀이'가 어떤 연계가 있는지 의아해할 시청자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었다고 봄.

또한, '혼합박' '길굿' 및 '오채' 등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 점도 매우 돋보였음.

게스트 소개 VCR이나 대한뉴스 자료화면이 들어가긴 하지만, 명사의 스튜디오 토크가 이어질 때는 지루한감이 있었음. 김덕수교수의 강의모습, 사물놀이 후배를 육성하는 모습의 스케치라든가 꼭 VCR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하는 모습의 자료사진 컷 또는 사물놀이와 싸이의 말춤을 비교한 자료화면 등 시각적 효과에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음.

프로그램	국민 리포트 '신 대한뉴스'		
방송일자	2014. 1. 10. 20:00	시청률	0.050

【총 평】

'영상기록 대한뉴스'가 2014년 새해를 맞아 '국민리포트 신 대한뉴스'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설명이 눈길을 끌었음. 대한뉴스는 다소 딱딱하고 정부 주도의 뉴스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신 대한뉴스'는 마을과 사람 중심으로 구성해 무척 흡인력 있었음. 특히, 영상속의 주인공이 직접 국민리포터와 내레이션을 담당하고 있어 집중력을 더해 주었음. 이웃의 보물, 행복현장, 희망인물, 문화의 발견이란 이름의 4개 코너로 나누어 서울 도심의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유적지, 서울 성미산마을공동체, 자폐장애인 종이작가, 문미영 요술 악단을 각각 '국민'이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구성 및 내용】

제목처럼 '국민 리포트'를 활용한 생활, 삶의 소소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삶과 밀착된 진솔한 감동을 느꼈음. 특히 '희망인물-박태현 종이공예작가'가 인상 깊었음. 제3자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국민리포트가 되어 아들을 '작가'로 호칭하고, 장애아들에서 의젓한 청년으로 자라난 모습을 소개하는 모습이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어 보다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전해졌음. 아들의 장애를 인정하고 곳곳한 청년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전해졌음.

【참고사항】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내용과 <신 대한뉴스>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지 의문임. 정감 넘치고 따뜻한 contents에 비해 프로그램 제목이 너무 딱딱하고, 동시에 <대한뉴스>라는 이미 고착화된 전혀 다른 이미지를 연상시켜 적절하지 않음.